

# “죽음과 차별을 멈춰야 한다!” 17일, 아리셀 희망버스 출발

8 송승현 기자 | 2024.08.12 16:36

30개 도시, 55대 희망버스, 1,500여 명 아리셀 추모현장 집결 예정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파견법 폐지 촉구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55일째가 되는 17일, 전국 30개 도시에서 희망버스 55대가 화성으로 모인다. 2011년 한진중공업 노동자 김진숙을 살리기 위해 첫 시동을 걸었던 희망과 연대의 상징인 희망버스가 2024년 1,500여 명을 태우고 아리셀 참사 현장에 집결한다.

아리셀 희망버스는 참사 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희생자 가족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어떤 진척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사회 전체의 힘으로 희생자 가족과 연대하기 위해 준비됐다. 희생자 가족들은 경기도와 노동부, 경찰, 아리셀 사장이자 살인자인 박순관 자택과 공장을 오가며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다.

아리셀 희망버스는 서울을 비롯한 30개 도시에서 참여한다. 백기완노나메기버스, 세월호버스, 기후버스를 비롯해 청년학생과 법률, 종교, 인권, 문화예술계 등 각계각층 시민사회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세균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고문을 비롯해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각계 희망버스 참가단위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김세균 고문은 “지난 6월 24일 리튬배터리 폭발사고로 23명의 노동자가 희생을 당한 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희생자 가족, 이와 뜻을 함께하는 노동자 시민들이 한여름 폭우와 폭염을 뚫고 투쟁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가 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참사는 정주노동자는 물론 살기 위해 이 땅을 찾은 다수의 이주노동자의 희생으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세균 고문은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누구도 진상을 규명하지 않으려고 한다. 적당히 빠져나가려는 상황은 우리사회를 더욱 야만적인 현실로 밀어넣고 있다”라며 “17일 우리는 힘을 모으려고 한다. 희망버스를 출발시켜 투쟁하는 유가족과 동료노동자와 연대하며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힘을 보탬 것”이라고 아리셀 희망버스의 취지를 전했다.

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수 위원장도 거들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한진중공업으로 처음 출발했던 희망버스는 불법파견에 맞섰던 노동자, 차별과 권리박탈에 저항한 노동자를 찾았다. 그 버스가 이번에는 화성 아리셀 현장으로 간다”라며 “유가족이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이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라는 확인을 전하고자 17일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출발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생명을 지키는 일, 노동자 안전을 지키는 일 또 사람과 노동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일을 아리셀 희망버스로 만들려 한다”라고 강조한 양경수 위원장은 “50여 일째 거리에서 싸우는 유족에게는 응원의 힘을 주고 사회적으로 착취 당하는 노동자에게는 투쟁의 용기를 불어넣는 희망버스를 조직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연대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송성영 공동대표 또한 “지난 50여 일간 공공기관이 참사를 대한 태도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도 저버린 행위였다”라며 “17일 희망버스 55대로 양심에 호소하겠다. 인권 무시의 사각지대에 무방비로 노출된 이주민의 팍팍한 삶을 희망버스로 전국민에게 호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1시경 아리셀 참사 현장에 도착한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정문부터 참사 현장까지의 펜스에 메시지 추모리본을 걸고 임시 분향소에 분향한 뒤 추모의 벽을 만들고 행진을 준비한다. 오후 3시부터 경기 화성시 남양사거리에서 화성시청까지 행진한 뒤 화성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본대회’를 치른다.

이날까지 취합된 지역별 희망버스 출발장소 및 시간은 서울(11:30 광화문 동화면세점), 의정부(11:00 장소 미정), 화성(12:00 동탄역), 평택(11:30 원평동사무소), 수원(11:45 팔달구청 주차장), 안산(12:00 화랑유원지2주차장), 부천(12:00 송내남부역), 이천·여주(11:30 이천시청), 성남(11:30 모란시장 주차장), 양평(11:00 양평군보건소), 파주·고양(10:30 장소 미정), 군포(12:00 금정역 3번출구), 인천(12:00 민주노총 인천본부), 강원(8:30 삼석시근로복지관 8:50 동해공설운동장 9:20 강릉시청 11:00 원주 미가일식당), 대구(8:00 반월당 동화백화점), 천안·아산(12:00 아산시청), 서산·당진·태안(12:00 서산시청), 청주(11:00 분평사거리), 대전(10:30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광주(8:30 광주광역시청), 여수·순천·광양(9:00 순천법원), 전주(9:00 전주종합경기장), 거제·창원(8:30 창원만남의광장), 밀양(승합차), 구미(9:00 구미근로자종합복지관), 포항(승합차), 안동(9:00 안동근로자복지회관), 울산(8:00 울산북구청), 부산(7:00 부산시의회 후문), 제주(미정) 등이다. 부문별로 백기완노나메기버스와 세월호버스, 기후버스도 함께한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유가족 대표 이순희 씨는 “우리 가족이 돌아간 지 50일이 됐지만 회사 측은 이 시간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 김앤장 뒤에 숨어 우리가 물러나길 기다리는 것 같다”라며 “이주노동자란 팻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것인지, 한국정부는 모든 노동자를 다 이렇게 대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순희 씨는 “하지만 우리는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다. 지금도 이 땀별 아래에서 한시도 쉬지 않고 호소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지지하고 지원하고 또 17일 희망버스로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 고마운 마음”이라고 희망버스 기획단과 시민사회에 감사로 전했다.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송승현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하라!

8.17

**불법천지 파견지옥  
파견법을  
폐지하라!**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8.17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

**재발방  
마련**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기획단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송승현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송승현



아리셀 희망버스 기획단이 1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7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 송승현



**송승현 기자** now.worknworld@gmail.com

---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